

투데이



# ‘코갓탈’ 3억 주인공은 광주여고 주민정양

〈코리아 갓 탤런트〉

## tvN 재능오디션 우승...‘팝핀여제’ 등극 전국 시청자 매료 “세계적 스타되겠다”

“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연습했습니다. 이번 우승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tvN ‘코리아 갓 탤런트’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여고 2학년 주민정(18)양은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주양은 이날 경쟁자 10명 가운데 9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여고생의 신분으로 프로 못지 않은 수준급 팝핀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전

국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방송 시작 전 배탈이 나 고생을 했으나 막상 무대에 오르자 여유있는 미소와 몸짓을 보이며 ‘팝핀여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지역에선부터 141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취미로 팝핀을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지금은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양은 이번 오디션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매일 새벽 3~4시까지 연습을 했다. 몸무게가 6kg이나 줄기도 했다. 하지만 팝핀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6년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주양이 공부를 통해 꿈을 찾기를 바랐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팝핀을 끝까지 바라보는 주양의 시선도 부모님이 됐다. 여자의 몸으로 격렬한 팝핀을 소화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두배 이상 노력했다.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부모님을 설득했고,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다른 학생들이 방과 후 대학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시간 동안 팝핀을 배웠다.

광주여고 차전호(49) 담임교사는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민정이는 공부도 싫어서 팝핀댄스를 선택한 학생이 아니다”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민정이의 모습에 나도 팬이 됐다”고 말했다.

주양은 “최종 목표는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는 것이다”며 “앞으로 댄스 학교를 만들어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우승 상금 3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상금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

◆팝핀 = 근육을 순간·지속적으로 수축·이완시켜 로봇과 같은 절제된 움직임을 선보이는 힙합댄스의 한 장르.

# ‘자스민 광주’ 에든버러서 ‘별5개’

## 광주시 영국서 투자유치활동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3일부터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광주 브랜드공연 ‘자스민 광주’가 프린지 공식 평가기관인 ‘브로드웨이 베이비’로부터 별 다섯 개의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브로드웨이 베이비’는 ‘자스민 광주’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지 못한 이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내용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자스민’이라는 형태에 대해 “죽은 영혼들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동시에 관객과 공연자들 모두가 함께 영혼들을 달래는 듯 하다”며 “영혼의 교감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정말로 진귀하고 큰 기쁨을 준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브로드웨이 베이비’는 이밖에 대규모 극장을 작품으로 작품성이 뛰어난 점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을 잘 표현한 점, 한국 전통의 ‘씻김굿’이라

는 제례의식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조화로운 점을 꼽았다.

한편,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 투자유치단은 영국에서의 이틀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기업방문과 수출, 기술교류 등의 경제교류 협력활동을 이어갔다. 투자유치단은 광화렌즈를 비롯한 특수유리 제조 기업인 쇼트사를 방문, 광주시 및 한국광기술원 공동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독일의 빌 사는 광주의 (주)프로팩 LED로부터 350만 달러 규모의 LED 조명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고, 한국광산업진흥회와 MOU에서도 180만 달러 규모의 LED 조명 제품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16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중흥건설 “취득세 3800만원 돌려달라” 광주시에 소송

## ‘분양수수료는 비과세’ 대법 판결따라...주택업체 반환 요구 잇따를듯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도급순위 1위를 기록한 중흥건설(주)이 광주시를 상대로 ‘취득세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분을 되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초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중흥건설이 지난 2008년 분양

한 광산구 수완지구 중흥S-클래스 1·2·3단지에서 부과된 취득세 47억원 중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분 3800만원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했으며, 올 초 건설업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직전 의무적으로 내는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과세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4차례의 변론을 거치면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흥건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분을 되돌려줄 것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광주시가 2008년부터 3년 간 지역 건설 불경기로 인해 공동주택 공급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과세분은 최소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한 건설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의한 것으로 민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1심 재판이 어떻게 되

든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중흥건설 측이 전국 각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선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과세분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흥건설 측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소송인만큼 소송할 자신이 있다”며 “소송 제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사전에 돌려주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윤현식기자 chad@

▲주택분양보증수수료 = 대부분의 건설회사 또는 시행사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공사 착공과 동시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납부한다. 이 수수료는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돼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법원은 올 초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목포 ‘노벨평화상 기념관’ 기공식 내달 5일로 연기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목포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 기공식이 다음 달 5일로 늦춰졌다.

목포시는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건립하는 노벨평화상 기념관 기공식을 다음달 5일 연다고 밝혔다. 기념관은 190여원을 들여 전체면적 4677㎡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양승태 새 대법원장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향후 6년 간 사법부를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양승태 전 대법관(63)을 지명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과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양 후보자와 함께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대법관 등을 대법원장 후보로 함께 검토했으나 이

념과 판결 성향 등의 측면에서 양 후보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이날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靑 민정수석 정진영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52)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정 전 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 전 지검장은 상황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 뉴스 브리핑

## 광주 세계김치연구소 공사 본격화

광주시는 세계김치연구소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한 발주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본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김치 세계

화와 과학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세계김치연구소는 182억원을 투입, 남구 임동동에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2012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 광주U대회 선수촌 화장주공 추가분양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장주공 아파트 재건축비사업조합은 오는 25~27일 조합원 추가분양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84㎡형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 본격 편입 운동

광주광역시로 편입을 요구해 온 전남 담양군의 일부 주민들이 본격적인 편입 운동에 나섰다.

담양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결성된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담양문화회관에서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 출범식’을 열었다.

그동안 담양에서는 전남 서남권과 중부권에 비해 개발 전망이 미미하고 광주광역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편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역단체간 이해가 맞물린 데다 주민 여론의 통합도 이뤄지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 언론노조, 종편 광고직거래 저지 총파업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공정방송 복원과 종합편성체널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찬성률 84.9%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112개 사업장 중 70개 사업장에서 찬반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75.4%로 집계됐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2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하며,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심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방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상준**

전화 **227-7575**  
이이췌 ~ 치료 치료

**(호남) 4·19혁명자료를 찾습니다**

「호남 4.19」는

- 광주금남로 3.15부정선거 첫 규탄 시위에 이어 그 동선(同線)에 촉발된 4.19혁명의 ‘시원(始原)’ 이었고,
- 4.19혁명의 전국 불길의 당기게 했던 3대 첫 진원지로서 선봉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낳게 했던 한국 민주지형의 ‘토대’ 였고 ‘허리’ 다

그래서 「호남의 4.19」는 아직 못다 이룬 미완의 4.19를 이순신 장군의 악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호남정신’ 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마지막 사명을 다해 갈 것이다

위 「호남 4·19 정의문(定義文)」에 따라 호남 4·19자료사 편찬을 위한 관련자료를 찾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간	자료 내용	비고
2011. 8. 1~10. 31 (3개월)	1960년 4월 당시의 광주/전남 · 북 (호남) 4·19혁명관련 모든 자료 - 관련기록 · 격문 · 발표문 · 일기 · 숨은 이야기 · 기타 문헌적 자료 - 관련사진 · 혁명참가 · 각급학교 · 단체 · 시민 등 모습 - 대모 참가자 녹취	- 미 공개된 자료는 소정보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일기 등 숨은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 원고료 차등 지급

연락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28(광주 4·19혁명기념관)  
전화. 062-224-0419 팩스. 062-222-0419  
kyy7514@hanmail.net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 신용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대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용)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용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대출 포함)

APT 한도: KBSI세~80%+a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연 3.93%~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